

● [협상] 2016학년도 9월 B 평가원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제시된 협상 상황 설명과 B의 일곱째 발화, A의 여덟째 발화를 통해,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A 마을과 B 마을이 축제를 공동 개최 한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협상 중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한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고 축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첫째 발화에서, '축제 공식 명칭'을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 했음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이번 협상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넷째 발화에 따르면, A는 B 마을이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협상 전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A의 다섯째 발화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일곱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A는 일곱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50%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제안을 이끌어냈음을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은 양 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응한 B의 여덟째 발화를 살펴보면, B가 자신이 제안했던 행사 배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행사 선택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A의 셋째, 일곱째, 여덟째 발화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이나 행사 배분 비율에 대한 요구, 단독 개최 추진에 대한 의사 등의 상대방 의견 이 적절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을 제안 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A의 여덟째 발화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언급한 것을 통해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제 타결의 시급함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의 질문은 연쇄적인 방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며, 축제 공식 명칭에 마을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와 행사 배분 비율에 관한 갈등은 있으나 그 갈등 상황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의 다섯째 발화에서 마을 인 지도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관련된 설명이나 감정에 호소한 내용은 없으며, 상대방의 무조건 양보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⑤ A의 여덟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라고 하여 가정 적 진술은 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다.

5.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A의 다섯째 발화와 B의 여섯째 발화에서 A 마을은 인지도 향상, B 마을 은 경제적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다섯째 발화부터 B의 여섯째 발화까지에 이르는 협상 내용에서, 축제 명칭에 A 마을 이름을 앞세우기 로 한 것은 A 마을의 인

● [협상] 2014년 수능B

1. 협상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모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협상 참여자인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직원 수'와 '하수 처리', '지역 농산물 구입'이라는 협상 안건에 대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회사 측과 시청 측은 회사의 지역 주민 '채용 인원' 수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고 있다. 즉,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회사 측의 발언과 시청 측의 '알겠습니다~수용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에서 요구 수용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처리를 하겠습니다.'에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 ⑤ 회사 측과 시청 측 각각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2. 협상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의 발화 의도나 발화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회사 측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지만,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다.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 내는 발화가 아니며, '㉡'도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가 아니다.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며,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다.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가 아니고, '㉡'도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로 볼 수 없다.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들의 공통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과 '㉡'은 모두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다. 즉, '㉠'의 경우, 회사 측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10%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10% 충원은 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시청 측도 지역 주민이 회사에 채용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 경우, 제안하는 시청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도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과 '㉡' 모두 제안하는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발표]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1~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5 문단 첫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진술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 문단 2번째 문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진술되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찾을 수 없다.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요구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표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발표에는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교 인근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지난 주 진로 시간 강연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한 개 념을 소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인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언급하고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발표를 들은 학생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①은 유형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 따라서 ①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복원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화유산의 훼손 정도에 따른 복원 가능 여부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 원리를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유산의 복원 노력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 [발표] 2017학년도 대수능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정선의 산수화 중 '관동팔경'의 주요 작품들이 시각 자료(화면)로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정선의 산수화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예로 쓰이고 있다. <충석정>은 수직준법과 생략의 기법, <삼일포>는 평원법을 써서 산수화의 '환'을 실현했고, <낙산사>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등 청중이 발표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작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열거되었으나, 참고 서적은 제시·열거되지 않았다. '환'에 관한 산수화 연구가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참고 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마지막에 제시되는 시각 자료는 점경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낙산사>이며, 전체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발표자가 첫 번째로 제시한 시각 자료는 <충석정>이며,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⑤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활용되었으나, 정선의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발표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발표자는 정선이 <삼일포>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였고, <충석정>에서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삼일포>에서 정선이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메모한 내용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환'이라고 하며,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의 산수화에 '환'이 실현되었다는 메모 내용 ③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정선의 산수화에서는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하며, 점경 인물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이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켰다는 메모 내용 ⑥은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정선이 <충석정>에서 '돌기등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등을 더욱 부각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충석정>에서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등을 더욱 부각하였다는 메모 내용 ⑦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낙산사>와 관련하여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라고 발표하였으므로, <낙산사>에서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다는 메모 내용 ⑧은 적절하다.

● [발표] 2017년 7월 교육청

1.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발표자는 경연과 관련한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홍문관과 편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경복궁의 배치도를 사진으로 보여 주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겠다는 학생의 발표 계획은 반영되었다. **정답 ③**

2. [출제의도] 발표 내용 파악하기

경연의 구성원 중 하나인 전임 관원은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천도 받아야 했음을 발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천의 방식을 배제했다는 것은 발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 [발표] 2017년 4월 교육청

4.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 대상인 해썹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라는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먹거리의 파수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3문단의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에서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드러나 있으므로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7개 의무 적용 품목군 중 일부만 제시되었을 뿐 확대 적용 품목은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위해 요소에 대해 언급했을 뿐,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 3년에 한 번씩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 [연설] 2016학년도 대수능 B

3.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연설에서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로 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A시의 도로경기장은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설에서는 주로 도로 경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사이클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의 장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 취지의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과 관련하여 사이클 대회 개최지로 A시가 선정되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②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며, A시가 이런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연설자는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이클 선수 출신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였다. ④ 연설자는 선수로 출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A시의 도로 경기장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4. 연설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먼저 대회 취지가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점을 언급한 후,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임을 밝혔다. 이는 대회취지 부합성 면으로 볼 때는 약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설자는 이런 사이클 비인기지역의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이클에 대해 개최지 시민들과 개최지 인근 국가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A시에의 대회 개최가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으로, 연설자는 대회 취지 부합성과 관련하여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장점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회 취지 부합성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전환하려 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우호 증진이 대회 취지와 관련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 여건의 강점으로 시민의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④ 연설자는 개최지 선정에 불공평성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는 대회 개최 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에 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A시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밝혀 A시가 대회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연설자는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설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중의 반박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연설자는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것처럼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④ 연설자가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A시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중의 반응은 연설의 내용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연설의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에 있는 도시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설자는 사이클에 대한 A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 [연설] 2016년 7월 교육청

3.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청중이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함은 '연설 의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설자가 연설 계획 단계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4. [출제의도] 연설의 전략 평가하기

[C]에서 연설자가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의 일부인 '어떤 존재들이 ~ 대상이 되어야 한다.'를 인용하여,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⑤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3문단에서 연설자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멸종 보호종의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멸종 보호종의 보호에 대해 동물 보호 센터 운영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 [강연]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한 까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 성분 표시 순서를 변경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가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제시된 강연 부분에서는 청중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2. 듣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 의하면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2문단 중간 부분에 의무 표시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 표시 성분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표시 방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개정 전 표시 도안이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진 데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를 구분해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추가 설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강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일부 가공 식품'에 한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지는 강연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2문단에서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 [강연]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본 분은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연자는 강연 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할 때 ‘요리 연구가 ○○○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뿐,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자는 자신의 강연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철쭉이 진달래꽃과 달리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을 뿐, 이 둘 사이의 형태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서 강연을 들은 학생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사실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궁금해 하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다. 즉 ㉡에서 식용이 가능한 꽃의 목록과 이를 재료로 한 음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하여 학교 화단의 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강연을 들은 학생은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을 화단의 꽃에 적용하고 있다. ④ 동아리 행사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학생이 강연의 내용을 활용하여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떠올렸다. ⑤ ㉡에서 학생은 꽃을 재료로 한 음식과 관련하여 꽃들을 식용 가능 범주와 식용 불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강연]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을 ‘작품 1’, ‘작품 2’, ‘작품 3’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강연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강연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이고 그 기능에는 언어적 기능, 조형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이를 나누어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강연의 이후 전개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② 강연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들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강연이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지만, 청중들이 희망하는 직업들이 제시된다거나 그 특징들을 서로 대비해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강연에서 질문은 드러나 있지만 이는 청중이 던진 질문이 아니다. 강연자가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거나, 강연한 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 경우만 있다.

2. 필요한 내용 파악 및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의 말미에 있는 내용 확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해당 질문의 경우 화면에 ‘작품1’, ‘작품 2’, ‘작품 3’이 한꺼번에 띄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한 작품들이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인지를 강연의 내용을 정리하여 생각해 보면 된다. ‘작품 1’은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글자들을 전체적으로 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되도록 제작하였다. 즉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했고 이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인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조형적 기능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강연에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의미와 상관 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③ ‘작품 3’은 강연에서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즉 ‘작품 3’은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이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로 볼 수는 없다. ④ ‘작품 1’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인 반면,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경우지만, ‘작품 2’는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는 반면, ‘작품 3’의 경우는 글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두 사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는다는 진술은 적합하지 않다.

● [면접, 인터뷰] 2015학년도 대수능 B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에게 각 화폐에 나타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그림이 별자리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항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은 ‘그렇군요.’라는 말로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든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배경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라는 말은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박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고 있다.

2.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상황을 설정하여,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태성’의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라는 말은 인터뷰 내용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터뷰 대화는 천 원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 만 원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화제로 제시한 천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후기의 그림이고 나중 화제로 제시한 만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이므로 박사님의 설명 순서가 시대순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쓸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지폐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다.’라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생소한 명칭인데다 박사님의 설명에도 이 천문도의 가치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말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차’란 목성의 운행을 기준으로 설정한 적도대의 열두 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열둘로 나눠 지상의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를 추가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생소한 이름의 천문도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계상정거도’는 천 원권 지폐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확대하여 제시하면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박사의 마지막 말인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박사의 당부를 전달할 수 있다.

● [면접, 인터뷰]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라고 말하고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모의 면접'의 흐름으로 볼 때 피면접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한 질문의 내용이나 의도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과, 세 번째 발화에서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②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③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이 말은 학생이 ~ 편안한 마음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며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⑤ 피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과 두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힘을 주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2. 면접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평가한다면 진로 준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선생님'의 안내 중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 글을 간단히 써서 면접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었죠?'와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의 글을 보니',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② '선생님'의 안내에서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 것과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③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④ 면접자가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고려한다면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3.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는 [A]에서 질문지의 질문을 고려하면서 면접자의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과, 질문의 성격을 '의견'보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두 매체를 대조하여 답하기로 한 답변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질문을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발언 중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질문 파악은 적절하나, 답변 계획에서 '글과 그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하려는 것은 '차이'를 묻는 질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질문을 표현 수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질문의 내용을 표현 수단이 다른 이유를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면접, 인터뷰] 2015년 10월 교육청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발화 특징을 이해한다.

㉮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발화이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환기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5. [출제의도] 기사 작성을 위해 나눈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인터뷰한 내용 중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을 '고대 문명의 특징'과 '마야의 역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 [면접, 인터뷰] 2015년 7월 교육청

1.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평가하기

화제인 '왕의 식사, 수라'에 대한 교수의 경험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교수는 화제인 '수라'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학생은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라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질문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①**

2. [출제의도]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라는 표제는 의문형 문장이지만, 그것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수라는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①**